

역대 최대 규모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성황’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 주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려
사전등록만 1만명 돌파, 인산인해

국내 최대 불교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 국제불교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살아있는 한국전통문화의 꽃, 한국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볼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일상이 빛나는 순간, 수행’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334개 업체 490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만큼 개막 첫날 행사장은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불잔범음의례교육원의 ‘전통불교의식’ 식전 행사에 이어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기획실장 주경스님, 문화부장 정현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수암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전국 비구니회장 육문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네팔 일본 등 8개국 60개 부스가 참여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키런 사카 네팔 대리대사, 마니사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 에드가르도 호세 꾸아레스 마 가르시아 주한 니카라과 대사 등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관내서 진행된 개막 행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번 박람회는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상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습관, 즉 수행법을 제안해 관람객들



지난 23일 SETEC서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 등을 비롯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안내해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가 제안하는 다양한 수행법과 전통공예를 통해 나를 채우는 수행법을 찾아 일상이 빛나는 순간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박람회가 한국 불교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통과 불교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노력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올해는 붓다아트페스티벌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불교미술작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아트페스티벌이 국제성을 가진 아트페어로 도약하고,

박람회가 우리 전통예술을 많은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로운 10년을 향해 발돋움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한국문화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전통 불교문화 박람회이자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나갈 수 있길 기원하겠다”며 “서울시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도 김재원 문화부 총무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박람회는 그동안 한국불교 대중화와 국제화를 표방해 전통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수많은 전통문화 예술인들을 양성해왔으며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국과의 교류전을 확대해 국제적 불교문화행사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박람회가 수행을 주제로 하는 만큼 불교가 대중들의 일상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 후에는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올해의 업체상’ ‘올해의 작가상’ 등의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은 개막 행사 이후 박람회 내부 전시관을 둘러봤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개막 행사가 끝난 이후 내부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 정념스님의 ‘우리스님, 한암스님’

개막 첫날인 23일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우리스님, 한암스님’을 주제로 법문하며 일제강점기에도 기개를 꺾지 않았던 한암스님(1876~1951)의 삶과 가르침을 전했다.

조선불교 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한암스님은 일제식민지 시절, 오대산으로 들어가 산중에 집거하면서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 역할을 다했던 시대의 큰 스승.

정념스님은 “한암스님은 사찰 위로 비행기가 뜨고 총탄이 날아와도 피하려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한국 사회가 쓰러지는 참담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여하게 자리를 지키셨다”며 “일제 치하에서도 한국 불교의 행진수반으로의 역할을 다했던 스님이 있었기에 해방 이후에도 한국 불교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한암스님이 좌탈 입망하셨던 모습에 대해 전하며 종속적인 삶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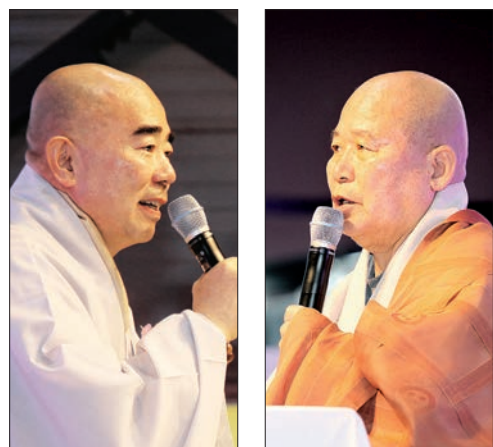
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 설명했다. 정념스님은 “스님께서는 입적할 당시에도 한 치 흐트러짐이 없었다”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스님의 이 같은 모습, 가르침을 깊이 새겨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 방법으로 인연의 이치를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마음수행을 강조했다. 세상 모든 것이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모두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져있음을 깨달을 때만이 열린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스님은 “늘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물질에, 명예에 흔들리는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일상 속에서 늘 존재의 이치를 명확히 깨달아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삶, 그리하여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항상 공부를 게을리 하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법문으로 만난 ‘우리스님’展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박람회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특별 법문은 강연이 펼쳐질 때마다 준비된 객석이 모자랄 정도로 대중법문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박람회서 법문을 펼친 정념스님(사진 왼쪽)과 선묵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선묵스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안심법문’

개막 둘째 날, 박람회 첫 행사는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안심법문’으로 시작됐다.

선묵스님은 “억만금을 가졌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돌덩어리나 미친가지”라며 “스스로 자신을 확대하고 특히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얼마나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돌아보라”고 말했다. “마음에게 미안해하세요. 마음을 담고 다니는 몸뚱이는 세월 속에서 늙어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친 어깨에 배낭을 메고 날 데리고 다닌다고 고생한 몸이니 감사해 하세요.” 100여명의 참관객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단전에 내려놓은채 스님의 안심법문에 귀기울였다.

스님의 선장에 따르면 참회와 현재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나 살기 어렵다고 부모님 살아실제 못보실뿐 잘못을 참회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 타인에게 전한 잘못을 참회합니다. 나와 남을 가리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좋다 싫다 분별심 낸 것을 참회합니다. 작은 일에 화내고 미워하는 것들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다같이 읊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가는 일입니다.” 경계 고양에 사는 이희순씨(55)는 “친구들과 처음 외났는데, 스님의 법문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너무나 행복하다”며 “마음이 정화되고 좋은 추억을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이젠 태양광 연등으로... 화성 신흥사 참배가능



(주)솔라마

솔라마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에 태양광연등을 많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동참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제작 가능.



태양광 청사초롱



PVC지지대 사용으로 내구성 강화



태양광램프 (12개 LED)

모든연등에 초간단설치

낮에 태양빛을 받으면 밤에 신비롭고 밝게 빛납니다.
전기 NO!! 화재위험 NO!! 설치용이!!

이 태양광(솔라) 연등들은 낮에 하루 종일 태양빛을 받으면 밤에 저절로 환히 밝아서 밖에 등만 걸어 놓으면 됩니다. 일체 전기도 필요 없고 등불을 켜고 끄고 하는 일도 필요 없어서 너무나 편리합니다. 물론 전기요금도 화재위험도 없지요. 또한 불빛도 신비롭게 아름다워 연등과 인등에 아주 필요한 등(기술)입니다.

